

주택담보대출 다시 불붙었다

우리銀 금리 0.2%P 인하... 국민·신한·하나銀도 인하 준비

금융당국 창구지도 '물거품' 우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진정국면을 보여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유지 경쟁이 또 다시 과당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여 저금리를 제시하는 물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우며 주택담보대출 유

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우은행이 다음달 1일 입주 예정인 대구 롯데화성캐슬골드파크 입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주택담보대출 유지 경쟁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우은행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 5% 초반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설정비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단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경쟁 은행들도 대우는 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본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과당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아파트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12일 0.2%포인트 인상했던 가산금리를 한달여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와외론'

2'와 '주택과외론' 가운데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지난달 콜금리 인상이 후 CD금리가 0.4% 포인트 이상 급등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고객들의 부담이 단기기에 크게 늘어나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직전 아파

트담보대출 가산금리의 0.2%포인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인상분을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한국세이은행 대구지점이 6월 말 설정비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아파트단지 대출을 취급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대구 롯데화성캐슬골드파크 아파트단지에는 대우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모두 5개의 은행 영업점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과당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면서 “여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은행 전담팀 사역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 예정지역 은행 영업점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産銀 평균 8,540만원 공공기관 중 연봉 1위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분야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정부 투자·출자기관이라도 급여 차이가 최대 2배에 이르렀다. 24일 주요 정부 투자·출자기관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엔 정규직(임원 제외) 1명당 평균 연간 인건비(성과급 등 포함)가 가장 많은 기관은 산업은행이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정규직 2천799명에 대해 총 1천776억원의 인건비를 지출,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간 8천54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7천910만원보다 8.0%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작년엔 7천540만원으로 전년도의 6천980만원보다 7.6% 늘었고 한국은행은 6천970만원에서 7천390만원으로 6.1%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의 1인당 인건비도 6천710만원에서 7천170만원으로 6.8% 늘어났고 기업은행은 5천820만원에서 6천210만원으로 6.6% 증가했다. 일반 공기업중에서는 한국전력(5천720만원), 무역투자진흥공사(5천680만원), 석유공사(5천660만원), 조폐공사(5천410만원), 수자원공사(5천340만원)가 5천만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지방영업은 토박이가 제격”

시중은행들 PB점포 개설·지역전문가 양성

기업은, 평동공단에 점포

시중은행들이 PB점포 개설과 지역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지방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중순 복합점포인 '우리프라이빗뱅킹'을 지방으로는 처음으로 부산 서면에 개설할 예정이다. 우리프라이빗뱅킹은 기존 우리은행 PB팀이 우리투자증권 서면지점에 들어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복합점포에 근무할 PB들을 지역 특성을 잘 아는 부산지역내 PB를 중에서 채용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또 상반기 채용에서 밝힌 영업직군 신입행원 160명 가운데 17여명을 지역전문가로서 선정하는 등 인사 측면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역전문가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까지 졸업한 신입행원 가운데 선발되며 특별한 애로가 없는 한 지정장이나 지역본부장이 될 때까지 해당 지역내 지점들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 부산 서면과 대구, 대전 등 3개 지역에 PB 점포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하반기에 부산 해운대 지역에 PB 점포인 골드앤와이즈(GOLD&WISE) 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8월말까지 해운대 PB점포에 적당한 건물을 확정할 예정이며, 고급형 현재의 특성을 잘 아는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故 정인영 하라건설 명예회장 영결식

지난 20일 별세한 고(故) 정인영 하라건설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4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이산병원에서 기독교장으로 엄숙하게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에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유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등 현대(家)의 주요 인사를 비롯한 7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故 정인영 회장님을 추도함

- 유인학

지난 20일 하라그룹 정인영 회장이 향년 86세로 타계 하셨다. 불변하신 품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한국 중공업 발전에 동분서주하신 '의지의 화신' 정 회장님을 그리며 '아, 또 한 시대의 인물이 가시는구나' 감회에 젖었다.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거친 정 회장님은 한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재기해 1989년 하라그룹을 재계순위 12위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1992년 영암 삼호지구에 일궈놓았던 하라조선은 '조선 전담'의 기초를 닦았고,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수주액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라조선 설립 당시라면 필자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다. 정 회장님은 필자를 만나자마자 "인전에 있는 5만평의 하라조선소를 삼호로 옮겨 세계적인 조선공단단을 만들 겠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정 회장님을 포함한 하라직원들과 필자는 혼연 일체가 돼 삼호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부지구입 협상, 주거 배분행인 외환은행과의 교섭 등을 처리한 끝에 하라조선소가 가동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라조선소는 1997년 IMF 파동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았고, 현대삼호중공업으로 간판을 바꿔달 수밖에 없었다. 고 정 회장님은 살아오시면서 수차례 커다란 좌절을 겪을 때때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셨다. 결국에는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셨으나, 그 분이 뿌린 씨앗은 조선소·제지공장·호텔로 꽃을 피웠고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지역민으로서 정 회장님의 무한한 열정을 고마움을 느끼며, 정 회장님의 명복을 빌다. (한양대 교수, 세계거주문화협회 총재)

위폐 지폐인식기 무사 통과 새 5천원권 위폐 11장 발견

상반기 1만4,311장 발견



성인오락실에서 1만원권 위폐가 다량 발견되며 이어 일부지역의 동전교환기에서 1천원권 위폐 수백장이 적발되는 등 지폐인식기를 그대로 무사 통과하는 위폐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올해 1월 첫 발행된 새 5천원권의 위폐도 상반기중 11장이 발견, 신고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만4천311장으로 작년 동기(1천345장)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견된 위폐 1만2천889장을 초과하는 규모다. 특히 1만원권 위폐는 9천872장이 발견돼 작년 동기의 1천656장에 비해 6배에 달했다. 전체 1만원권 위폐의 절반 이상인 5천893장은 이미 연봉을 통해 보도된 대로 성인오락실에서 위폐범이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이 실물을 압수한 경우다. 이러한 성인오락실 발견위폐를 제외한 1만원권 위폐(3천979장)는 작년 동기(1천656장)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1천원권 위폐는 모두 452

장이 발견돼 작년 동기보다 7배가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한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서 1천원권 위폐 349장이 발견돼 일부 지폐인식 센서가 위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성인오락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동전교환기의 지폐인식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위폐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기계의 지폐인식장치가 노후 또는 성능이 떨어져서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폐를 걸러낼 수 있도록 동전교환기나 자판기 등 각종 기기에 좀 더 정교한 지폐인식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동원그룹 “이름 때문에 골치 아파요”

동원그룹이 동원수산, 동원캐터링 등 같은 이름의 업체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동원그룹은 24일 “MBC TV ‘PD수첩’에서 오는 25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동원수산 소속 동원호 선원들에 대해 다들 예정보고하고 해서 미리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수산은 1970년 고객이 많다”고 전하고 “동원호가 납치됐을 때 밤새 확인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문의가 많이 올라와 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동원그룹은 얼마전에도 급식사고에 연루된 동원캐터링이 급식 전문 계열사인 동원푸드와 이름이 비슷한 탓에 해명을 하는 소동을 겪은 바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축산업(주)	[총무부/영업부/품질부]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6	062-419-8171
(주)광주광역시정보센터	웹디자인 및 프로그래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6	062-224-8564
(주)지오하우스	수입자동차 폭스바겐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351-9500
한글과 컴퓨터 CO교육사업부	컴퓨터 방문지도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366-7220
(주)신성금형	CAD/CAM, 품질검사, CNC 선반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30	011-644-0060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원도우 프로그래머, 게임프로그래머, C++ , 3D툴	대졸/경력3년	2200~2400	07/30	062-530-0360
금호생명	금호생명 광주T지점 텔레마케터 3기생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31	062-360-5203
퀀스빌건설(주)	건설회사 재무업무, 총무업무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31	062-572-5500
평안건설(주)	사무관리원 (문서작성,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262-8151
한국에너지머킹	산업기계,자동화 설계/자재 관리 요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02	062-953-6722
신성하이텍(주)	총괄/가공기술/품질/CNC선반/VMCT/검사/물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3	062-952-1441

(광주지리번호 512-6210 제공)

증권맨 ‘철새’ 은행원 ‘불박이’

평균 근무기간 증권사 8년·은행 16년

국내 대형 증권사 현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평균 8년 정도로 주요 시중은행 행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 연구소에 따르면 증권맨들의 잦은 이직은 널리 알려진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개발 증권사들에 중요한 무형자산인 고급 전문인력, 즉 인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증권사 경쟁력 제고와 증권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국내 7대 대형 증권사들의 2005회계연도 사업보고서(2006년 3월말 기준)에 기재된 이들 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길어야 9년 남짓이며 7개 증권사 평균은 8.08년이다. 삼성증권이 고작 5.67년에 불과해 가장 짧았고 이밖에 ▲대우증권 7.99년 ▲우리투자증권 8.58년 ▲현대증권 9.03년 ▲한국증권 8.3년 ▲국민신한증권 7.42년 등이었으며 대신증권이 9.58년으로 가장 긴 편에 속했다. 중소기업은 더욱 짧아 ▲한양증권 6.8년 ▲신흥증권 6.2년 ▲신영증권 6.6년 등이었고 동부증권은 불과 3.52년이었다.

반면, 서울에 본점을 둔 6개 상향은행(상장 금융투자회사 산하은행 포함) 행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5.7년이었다. 기업은행의 평균 근무기간이 17.83년으로 가장 길었고 ▲국민은행 16.17년 ▲우리은행 16.42년 ▲통합전 조흥은행 16.75년 ▲외환은행 15.1년 등이었다. 하나은행은 11.9년으로 여타 은행에 뒤졌으나 이는 여행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7.4년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남행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여타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16년이었다. /연합뉴스

“5가지 유혹 멀리하라”

독심자생명, 윤리경영 방안 제시

독심자생명은 24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윤리 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에게 윤리 경영을 위해 멀리해야 하는 5가지 유혹을 제시했다. 이는 뇌물, 유혹(자꾸 만나자고 해서), 은혜의 유혹(아무도 모르겠지), 방심, 유혹(살마 내가 걸리라), 집단, 유혹(다들 그러는데 월), 약속의 유혹(옛날에도 그랬는데)이다. 또 독심자생명은 사내 모든 컴퓨터의 부팅메시지 자동으로 윤리경영 항목이 화면에 나타나 임직원들이 매일 출근과 동시에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의 직무윤리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가’, ‘나중에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 뉘우쳤다고 생각할까’, ‘내가 한 일이 고객, 동료, 가족에게 알려져서 뉘우칠까’, ‘내가 한 일로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